“인간·자연·문화가 중심되는 광주 만들자”

1. 프롤로그
2.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중요하다
3. 지속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자
4. ‘공공프로젝트’가 미래 결정한다
5. 에필로그 - 전문가 좌담

일시 - 2009년 9월 22일
장소 -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
사회 - 조경완 광주일보 편집국장
참석자 -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장상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

◀ 지난달 22일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광주, 도시경쟁력을 높이자’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회가 조경완 광주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장상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례 없는 무한 도시경쟁 시대를 맞아 지방도시인 광주시 역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킨 대표적인 시의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장상근 본부장=광주시는 지금까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소비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산도시’, 그리고 ‘창조 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나 전자·금형산업 등 제조업은 물론 문화·디자인·광산업 등 참단·문화산업을 양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기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광산업, 광주 비엔날레,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은 이러한 광주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규 교수=광주시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크게, 효율적인 도시 기반시설 구축과 적극적인 문화산업의 장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시 기반시설 구축 측면에서는 광주시민들이 도시 및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점과 공공시설물의 건설기술 심의나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한 도시 만들기 사업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과거에 비해 각종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조용준 교수=도시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도시의 흡인력 있는 매력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수도 정책,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물론, 폐선 부지의 푸른길공원 조성, 한국은행 부지 등의 공공공간 조성 사업은 광주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의 정책이나 사업 중 광주에 적용가능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조 교수=인간과 환경, 공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부르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의 중시, 개개 건물의 통제, 공공공간의 정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코하마의 경우는 연차적으로 한 지역씩을 선정해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선진국 도시들은 그들 도시들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시가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할 내용은 도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일본의 CASBEE, 영국의 BREEAM 등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염원 배출기준, 탄소가스 배출량, 사용 에너지 등의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지속성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광주시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타 국가나 도시처럼 이를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 본부장=일본 구마모토현에서 1988년부터 시작한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는, 경찰서, 교통센터, 주민지원센터, 미술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커미셔너’로 참여했는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그 문호를 모두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장기간의 인내와 창의적인 발상이 융합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향후 발전은 ‘자연’과 ‘문화’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광주가 이러한 두 축을 통해 향후 지향해야할 도시 미래상은 무엇일까요?.

▲오 교수=광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정리할 때 선결돼야 할 것은 ‘광주성’을 찾는 것입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정신, 고요함, 침묵, 인본, 명예, 고결, 창조, 예술 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키워드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주를 시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슬로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푸른길이나 광주천, 이름 모를 골목길 등 광주의 선(Line)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광주의 일정영역과 장소에서는 통일되고 특화된 다채로운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기존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넷째,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 등도 편안한 인본·인권도시의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 교수=자연과 문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는 삶을 지지해 온 틀과 거기에서 습관화된 행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삶을 지지해온 틀은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가 산업발전과 부의 축적 과정에서 자연과 문화는 파괴되거나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러한 반성 속에서 인간 척도의 도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주는 보행이나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도시,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광주가 다른 국내도시뿐만 아니라 국외도시들에 비해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 본부장=광주시의 경쟁력 측면에서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중심도시사업을 내실있게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아이콘으로 하는 훌륭한 선택이며, 이를 후손들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줘야 하겠죠.

▲오 교수=이탈리아의 베니스, 피렌체,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선행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대기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온실가스 억제, 도보를 중심으로 해 오염원을 최소화시킨 교통망, 역사가 보전되고 역사적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심공간, 어디서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예술성 넘치는 거리,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등이 창조 도시의 조건일 것입니다.

▲조 교수=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자본과 물자가 도시경쟁력이던 시대에서 지식과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주민주체의 창의력과 주민합의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집결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시대는 리더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 조정, 가공, 발신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장시간 좌담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장 본부장=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이제 시민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공간인 도시를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책임 하에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광주만의 특별한 정신과 품격이 느껴질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 도시 소품들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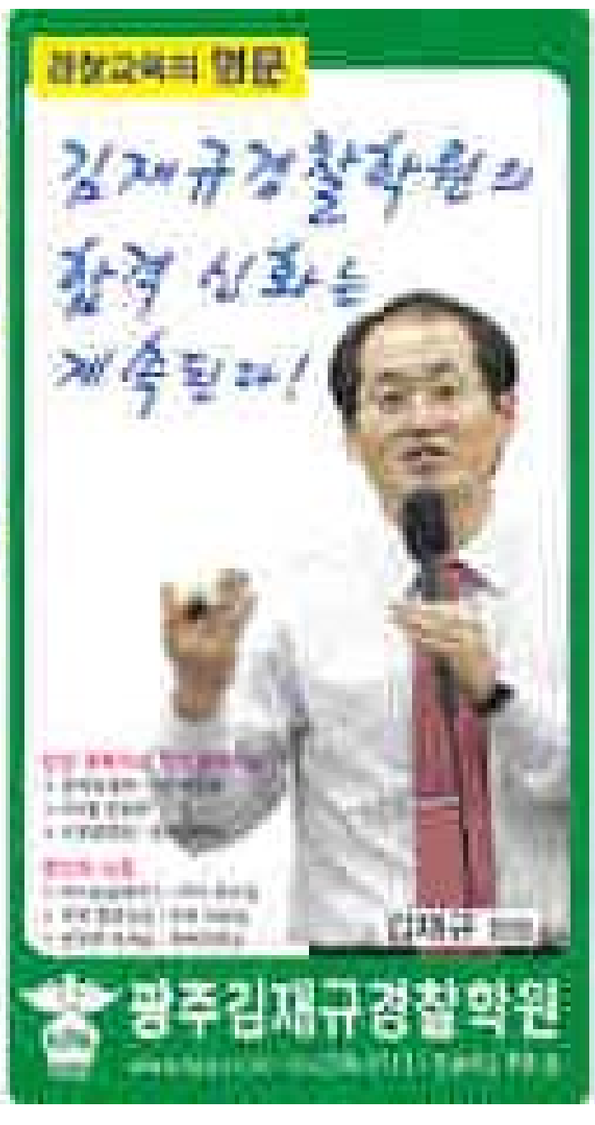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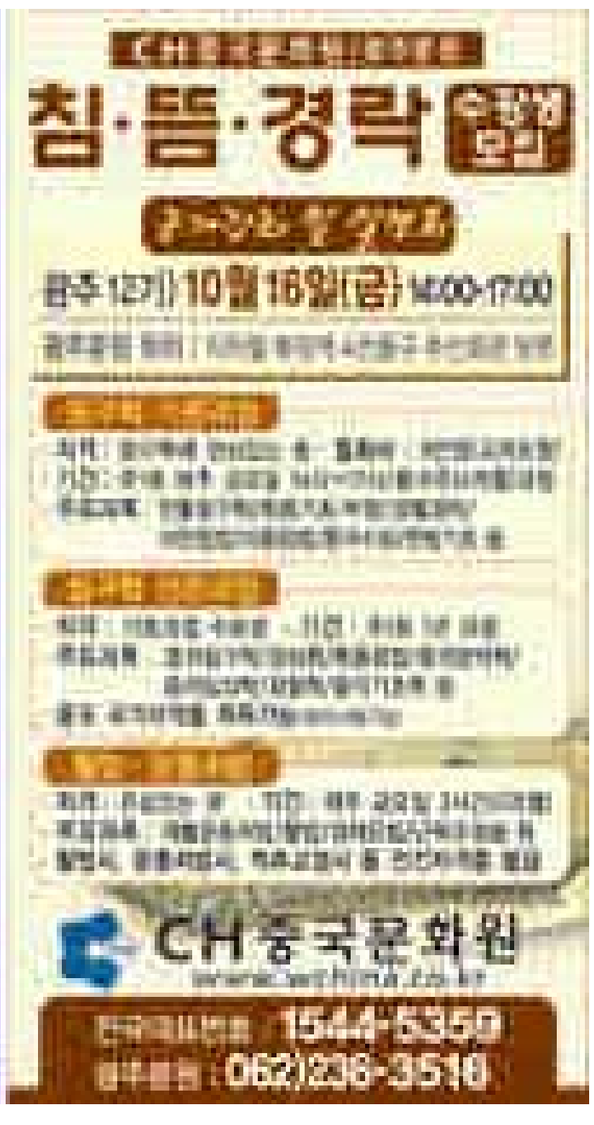
/정리=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상근 본부장

“문화수도 완성이 광주 가장 큰 과제”

조용준 조선대교수

“창조도시 리빌딩 시민 역량 모아야”

오세규 전남대교수

“약자들이 편안한 인권도시 구축을”